



##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고를 향해 정진하는 기업 주식회사 신우디엔시

(주)신우디엔시(대표이사 이기환)는 고객에 대한 신의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20여 년간 전기 분야 설계업무 및 전력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접지 계통 분석 및 해석, 신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시뮬레이션화와 철도 시설물의 설계 계산 프로그램 개발, 시공자재의 실용신안, 특허 취득 등 전기철도의 설계와 시공감리 부문에서도 최적의 품질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21세기의 SOC 사업 및 철도, 교통 분야에서도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며 공헌하기 위해 힘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신우디엔시를 소개한다.

### 경 영 목 표

- ◆ 친환경성을 고려한 신기술의 설계 적용
- ◆ 기술 축적을 통한 다양한 설계 기법의 개발
- ◆ 최적의 전력품질 향상 방안 연구
- ◆ 현장여건에 부합된 최적의 시공방안 도출

신우디엔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도입, 연구개발 등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 사업인 수중분수(월드컵 분수) 설계, 국내 최장 터널이었던 죽령터널 및 인제터널 설계, 서해대교 설계 등 수 많은 결과물을 창출해 냈다.

또한, 시대변천에 따라 전기산업 분야의 신기술·신공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지난 2006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로

전력신기술을 지정 받았으며, '전원 자동절체 시스템 및 절체제어방법' 등 다수의 특허도 취득하였다. 나아가 철도 및 지하철 전기산업 분야의 전기안전을 위한 '지하철, 전철 설계를 위한 열차운행 모사 프로그램' 등 8건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신우디엔시는 생활환경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첨단·친환경성 도시기반 시설 등이 요구됨에 따라 ▲자연에 순응한 친환경성 소재 활용 설계기법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설비 적용 ▲시뮬레이션에 의한 시스템의 최적화 도출 등을 통해 설계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관조명의 경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교량, 조형물 위락시설 등에 다양한 광원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환경을 개선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역사 설비는 지하공간에서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신축·개량시켰다.

한편 시공감리분야에서도 품질 인증 시스템에 의한 완벽한 시공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상호 인터페이스를 통한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축적된 기술력에 의한 선진 감리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설계감리분야에서 도로·터널 조명, 전기철도 등 완벽하고 정밀한 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인천 지하철 송동 연장선 전기설계감리 ▲경전선 진주~삼랑진 전력설비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신우디엔시는 다수 특허 실용신안 등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국내 전기설계·감리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주력 분야인 도로 터널·전기철도 분야에서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KEA

**주요 연혁**

- 1983 신우전기설계 사무소 설립
- 1990 (주) 신우설계 법인체 등록
- 199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2001 (주) 신우디엔시 상호 변경
- 200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사옥 준공 및 이전
- 2006 해외건설업 전기공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 2011 철탑산업훈장 수상(제46회 전기의 날)